

지식을 채우는 천국…시민들 평생학습 돋는다



헤이그도서관 1층에 자리한 카페(위). 헤이그도서관은 정보화시대에 맞춰 시민들의 미디어활용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 도서와 자료들로 꾸며진 어린이 열람실 전경(위). 헤이그도서관은 장서 이외에 재즈, 클래식, 오페라 등 30여 만개의 CD와 DVD를 소장하고 있다.



2018 책의 해 기념-국내외 선진공공도서관 탐방

도서관, 문화를 품다

<9>헤이그 시립도서관

헤이그=글·사진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기차를 타고 약 1시간 30분 정도 달리면 헤이그(Hague)에 닿는다. 암스테르담이 네덜란드의 공식 수도라면 헤이그는 행정수도쯤 된다. 모든 정부 부처에서부터 대법원, 국제사법재판소, 각국의 공관이 이 곳에 주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헤이그는 꽤 친숙한 도시이기도 하다. 고종황제의 밀사였던 이준, 이상설, 이위중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세계 각국에 알린 후 순국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시내 중심가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당시 이준 열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헤이그 중앙역에서 내려 시내쪽으로 10분 정도 걷다 보면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백색 건물이 눈에 띈다.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가 설계한 '헤이그 시청사 & 시립 도서관'이다. 12층 높이의 모던한 분위기와 절제된 외관이 얼핏 보기엔 IT 회사 사옥이 배울 수 있다.

특히 도서관이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네덜란드어 교육이다.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일찍이 이민자들을 수용한 네덜란드는 언어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보고 어린이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강좌를 운영한다.

시립도서관의 홍보팀 트레이시 밸만은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만큼 시민들의 평생학습(Life long learning)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헤이그의 18개 공공도서관은 유치원에서부터 초·중학교와 연계해 수백 만명의 학생들에게 가장 빠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액티브 파트너'(active partner)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헤이그에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왕립도서관과 18개의 공공도서관이 공존하고 있다. 수백 년 전의 고서와 학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왕립도서관이 아카데미한 서고(書庫)로 네덜란드의 자존감을 높인 반면 정작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 1906년부터 공공목적의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마침내 지난 1986년 헤이그 시의회가 시내 중심가인 스플이(Spuip)에 시립도서관 건립을 승인하면서 100년 동안 이어져온 지역의 숙원이 해결됐다.

"책을 보존하는 서고가 아닌 지식을 채우는 천국" 당시 시의회가 내건 시립도서관의 미션에 네덜란드 출신의 건축가 르 클하우스, 미국의 리차드 마이어, 독일의 훌버트 얀 등 5명이 응모했다. 이들 가운데 '백색의 궁전'이라는 컨셉으로 도서관의 고정관념을 깬 리차드 마이어의 설계가 당선작으로 결정되면서 '헤이그 프로젝트'는 금물살을 타게 됐다. 마이어는 1만4000㎡ 면적에 시청사와 중복된 공간을 절제해 배제한 7층 규모의 미디어 아카이브 설계로 화제를 모았다.

밸만은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가구 디자이너 아르네 아프센의 쾌적한 소파에 앉아 카푸치노를 마시며 책을 읽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설레는 일"이라면서 "하지만 헤이그 시립도서관에 오면 이런 즐거운 일상을 날마다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힐플러스 건너편

